

간호사 국가시험 2만1397명 응시

합격자 발표 2월 19일 ... 휴대폰 문자 통보

2019년도 제59회 간호사 국가 시험에 2만1397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지난 1월 25일 시행됐다.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는 최종 2만1700명이 접수했으며, 이중 2만1397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 98.6%를 보였다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밝혔다. 국가시험은 전국 12개 지역, 3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시험장은 지난해 11개 지역에서 전남이 새로 추가돼 모두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시험이 치러진 12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제주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서울 선린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을 방문했다. 김창휘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환담하고 함께 시험장을 둘러봤으며,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은 △1교시-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2교시-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3교시-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다.

시험문량은 모두 295문항이며, 시험시간은 총 270분이다. 배점은 1문항 당 1점이며, 총점은 295점이다.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된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2월 19일(화)이다.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와 ARS(060-700-2353)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한 응시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합격여부가 통보된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간호사, 커뮤니티케어 성공 핵심역할 해야

통합케어 개념 체계적인 간호교육 필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준비를 위해 통합케어 개념의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간호사는 '케어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귀운 울산과학대 간호학과 교수(노인간호사회 회장)는 '간호사 역할과 간호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간호연구학회지 2018년 12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에서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역량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모델과 간호사 역할, 커뮤니티케어와 간호교육 등에 대해 고찰했다. 커뮤니티케어는 간호사를 비롯한 다학제간 팀기반 관리를 필요로 한다. 대상자 중심이어야 하며,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

인 서비스이다. 복합적인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는 대상자, 가족 및 협력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확실하고 일관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 활성화, 정보 공유,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 활성화, 정보 공유,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 활성화, 정보 공유,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연구와 근거기반 실무, 조정과 협력, 리더십 등의 내용을 다뤄야 한다. 교육과정은 과거의 분절적인 교육방식에서 통합적인 교육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은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특히 통합케어 개념을 반영해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ICT를 활용한 e-러닝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학습법에 전통적인 강의실과 온라인 교육 방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교수학습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최귀운 교수는 "한국적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커뮤니티케어에서는 협력적인 팀 접근이 중요하고, 팀에서 간호사가 주된 '케어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게시판

대한기독교간호학회 겨울수련회
대한기독교간호학회(회장 정순화)는

'황제 렌즈로 보는 간호와 돌봄' 주제로 제57회 겨울수련회 및 제46차 정기총회를 2월 14~16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예배실 및 연세대 간호대학 창조관에서 개최한다.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과 연세대 간호대학에서 공동 주관한다. 사전등록 2월 7일까지. 홈페이지(koreancn.org) 내 '참가신청 및 후원' 메뉴에서 참가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735-6378.

중앙간호학회 총회 ... 새 회장 박정숙 교수

대한중앙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1월 9일 열고 새 회장으로 박정숙 계명대 간호대학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제1부 회장(차기회장)에는 박은영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가 뽑혔다. 학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미국 중앙간호학회(ONS), 국제중앙간호학회, 아시아중앙간호학회 등 해외 학술회에 참석하고 학술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중앙간호사상, 우수연구상, 우수연구계획상 등을 계속 시상한다. 2020년 대한중앙간호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학술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중앙간호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학회지의 SCOPUS 등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군산간호대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개최

군산간호대(총장 김순자)는 '2018학년도 교과목 운영 평가회 및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를 1월 17일 개최했다. 교과목 운영 평가회는 교육품질의 평가·개선을 위해 모든 교수진이 모여 한 학기 동안의 교과목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교과목 개요 및 수업계획서, 주요 교수학습전략(수업운영), 교과목 성취도, 학습부진자 및 미성취자 관리, 교과목 CQI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에서는 '릴레니엄 세대가 도래함에 따



라 변화해야 할 교수자의 마음가짐 '토론 방법의 변화' 등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순자 총장은 "교수진들이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창원 the큰병원 사랑의 헌혈 행사

창원 the큰병원(대표원장 신호동, 간호과장 임선미)은 혈액수급이 어려운 동절기마다 이어온 사랑의 헌혈 행사를 1월 23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창원 the큰병원 임직원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됐다. 헌혈 및 헌혈증 기부기 이어졌다. 임선미 간호과장은 "매년 꾸준히 실시해오는 행사"라면서 "올해는 특히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만



남 간호과에서 사랑의 헌혈, 사랑의 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다문화건강학회 총회 ... 전미순 회장 재선임

다문화건강학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1월 22일 열고 전미순 현 회장(백석대 간호학과 교수·사진)을 재선임했다. 학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논문의 투고와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학회지를 연 2회 발간하고, 질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학 내 다문화 관련 동아리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경희의료원 신입간호사 격려 프로그램

경희의료원 간호본부(본부장 유재선)는 2018년에 입사한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Cheer up' 행사를 1월 11일 개최했다. 신입간호사와 선배간호사의 경험 나누기, 1년 후 발송되는 나에게 쓰는 격려 편지, 동기들과 소통의 시간, 영화관람, 불꽃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입간호사들은 "멘토와 동기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병원에 대한 소속감이 커졌으며, 서로 신뢰



감이 형성돼 좋았다"고 말했다. 유재선 간호본부장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과 1:1 멘토십으로 신입간호사를 지지하고, 단계별 업무 관리 및 동기 부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522-1755

인사 전남대병원 신은숙 간호부장

전남대병원은 간호부장에 신은숙 병동간호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1월 1일자. 신은숙 간호부장은 1982년 전남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대병원에서 졸업관리실 팀장, 간호교육팀장, 병동간호과장 등을 지냈다. 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에 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신은숙 간호부장은 "공감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 서로 존중



주혜진 기자 hjjo@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간호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회 정회원 대상. 총 2편을 선정해 연구비 각 50만원 지원. 2월 25일까지 이메일(unification.nursing@gmail.com)로 연구계획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nsku.org) 참조.

통일간호학회 창간호 논문모집
통일간호학회(회장 강은희)는 2019년 4월 발간 예정인 통일간호학회지 창간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통일간호학회지는 통일간호학회의 공식 학회지로 연 2회 발간할 예정이다. 논문 투고는 홈페이지(nsku.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이메일(leomommy@hanmail.net).

BEST
간호사님께 주고 싶은 책!

기억과 기록이 만난 에세이

달나라로 간 소신

심공 & 감동

KYOBO 교보문고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 메시지

처음에는 그저 가계도나 그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 A4 용지 서너 장이면 족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던 것에 어린 딸들 읽기 쉽게 하겠다고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지극히 개인적 소사(小事)에 어설픈 문체(文體)라 무엇을 어찌할 바가 아니었는데 "교육칼럼보다 재미있다"는 주변의 지나가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소신을 뒤로하고 달나라로 간 것이다.

_ 저자 서문에서

'가족 가치'에 대한 든든한 인식

《달나라로 간 소신》은 작가가 신문기자로서의 비판적 공음과 현실주의 사회의식을 표방해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푸근하고, 설명하기 힘든 심미적 아름다움을 은연중에 거느린다. '가족 가치'가 빛어내는 건강한 사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사랑이 문맥의 뒤에서 또는 행간의 여백에서 향훈(香薰)처럼 스며든다. 그게 바로 이 산문집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_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 발문에서

이낙진 지음
지식과 감성 / 1만3000원
유명저서점·인터넷서점 판매

NAVER 달나라로 간 소신 을 검색하세요.